

아내들 언제까지 맞고 살아야하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국회의원들 무관심속 '오리무중'

노 97.5.23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희생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곧 제정될 것으로 보였던 「가정폭력방지법」이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국무총리표창으로 호부상을 받고 서울시로부터 장한 시민상까지 받은 이관순(45)씨가 남편의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올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법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여의도 신한국당사와 국민회의 당사 사이에서 '매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여는 한편 각당 대표 면담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임시국회가 열리는 첫날 국회앞에서 집회도 열 계획이다.

여성의 전화 정춘숙 인권부장은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맞아 죽거나 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며 "더이상 맞아서 죽은 아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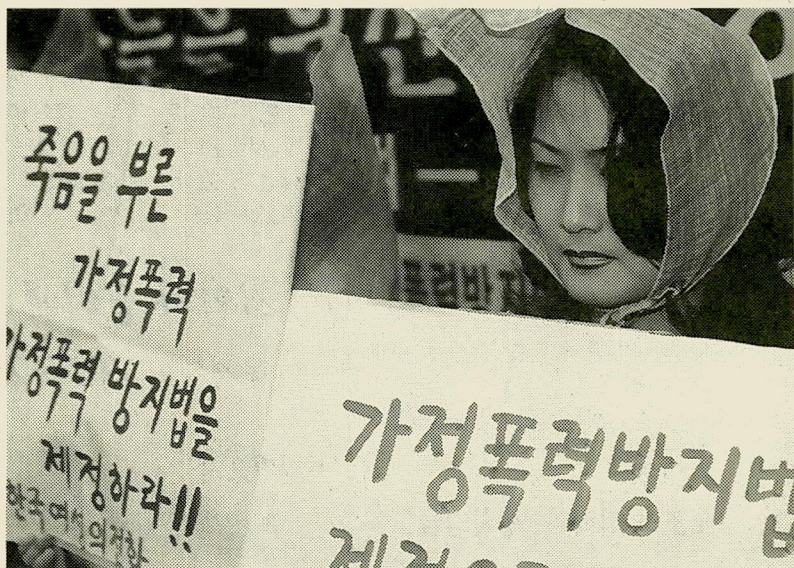
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부장은 지난 4.11 총선 당시 많은 후보들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워 놓고도 당선후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아직 법사위에서 심의 조차 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올 임시 국회나 정기국회에서의 통과가 불투

명하다"고 밝혔다. 법사위 제1소위원회 위원인 신학국당 최연희 의원도 가정폭력방지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범국민운동본부와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가정폭력법안은 ▲가해자 상담·치료 및 사회봉사, 보호관찰, 피해자에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 ▲경찰의 즉각 출동,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이 덕조 기자〉



「가정폭력방지법」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매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고 가정폭력방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민 기자)



남편에게 구타당해 온몸에 멍이든 여성.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가정폭력 살인사건만 30여건.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 여성 중 30%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의도적 반복적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는 흉기 등을 이용한 폭력으로 목숨까지 위협

죽음을 부르는 가정폭력

91~97년 사이 알려진 살인사건만 30여건

한 상태.

이처럼 가정폭력의 피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집안 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심각한 가정폭력의 사례를 소개한다.

97.4.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이관순씨가 남편의 구타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

96.8. 10여년간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온 김영순씨가 남편을 목졸라 살해.

96.7. 11시간 동안 남편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마산의 구순남씨 사망.

96.4.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사위를 이상희 할머니가 살해.

95.6. 13년간 남편에게 극심한 구타와 학대에 시달린 최현옥씨가 남편을 살해.

94.1. 23년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구타를 일삼은 남편을 이순심씨가 살해.

93.2. 부부싸움 중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던 남편을 이형자씨가 살해.

92.10. 12년간 술을 마시고 아내를 구타하다 처가집이 자신을 푸대접한다고 장인, 장모, 부인, 딸을 도끼로 살해하는 사건 발생.

〈자료제공: 여성의 전화〉